

새로운 국어과 교육 과정 개정에 관한 小論

손영애*

〈 차 례 〉

- I. 머리말
- II. 1차~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화
- III. 새로운 국어과 교육 과정 개정에서의 '내용'
- IV. 새로운 국어과 교육 과정 개정에서 고려할 점
- V. 맺음말

I. 머리말

국가에 의해 고시되는 교육 과정은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 과정 개정은 그 당시의 학문의 수준을 드러내는 작업으로, 국어과 교육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교사, 연구자, 전문가, 사범대학에서 국어교육학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등 국어과 교육과 국어교육학에 몸담고 있는 인력이 체계적으로 관여하는 일이 필요하다. 해방 이후 60여 년 동안 일곱 차례의 교육 과정 제·개정을 거쳐 왔다. 그동안의 국어과 교육 과정 및 교육 과정의 개정 절차를 살펴보면 장족의 발전을 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과정 개정 절차에서부터 교육 과정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국어교육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상태까지 발전해 왔다.

새로운(8차) 교육 과정은 각론과 총론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교육 과

* 인하대학교.

정을 수시로 개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고 한다. 지금까지 국어과 교육 과정의 개정이 국어과 내적인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교육 과정 전체가 움직이니까 따라가는 것으로 생각했을 사람이 많을 것이다. 상시 연구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체제로 가겠다는 것은 각 교과와 내적 필요에 의해 교육 과정 개정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 교육 과정의 큰 흐름에 따라, 교육 과정을 일괄 개정하는 것이 순기능도 한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국어교육학이 교과교육학과 교육학에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입장이 되면 국어과 교육 과정 개정의 내적인 필요가 더욱 부각될 것이다.

본 연구는 총론이 움직이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고 국어과 교육 과정만, 그것도 '내용' 위주로 새로이 개정될 교육 과정을 생각해 보려 한다. 그동안 교육 과정 개정 작업이 국어과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등 큰 틀을 주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다. 여전히 큰 틀이 시원한 해결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영역별로 한 항목 항목을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 속에 놓을 만큼 인력 자원도 부족했고, 학문적 성숙이 그것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어과 교육의 성격이나 목표가 중요하지만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교육 과정 개정에서 논의된 정도에서 기본적인 틀을 견지하고자 한다. 국어과는 보통 교과로서, 교육을 받는 모든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과라는 상식도 유지하려 한다.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교과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과서 중심이 아닌 교육 과정 중심의 교육을 말하지만 교사와 학생에게 교육 과정과 교육 현장을 연결짓는 교량 구실을 하는 교과서가 훨씬 다가오는 자료다. 이 교과서를 통해 한 시간 한 시간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한 시간 한 시간이 쌓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때 시간 수업의 토대가 되는 것이 국어과 교육 과정의 영역별 '내용'이라 하겠다. 이 내용의 체계화가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다.

II. 제1차~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화

제1차~제7차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교육 과정 체제는 크게 보아 '성격→목표(학교급 목표, 학년별 목표)→내용(내용 체계)→방법(지도상의 유의점)→평가(평가상의 유의점)'라는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중 '내용'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 과정 개발 과정에서 '내용' 영역을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지를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다. 제1차~제3차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 활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고 있는 데 반해, 제4차 시기부터는 언어 활동뿐만 아니라 국어 지식과 문학을 별도의 내용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4차 시기의 국어과 교육 과정은 <표현·이해>, <언어>, <문학>의 세 영역으로 내용을 체계화하고, 세 영역 사이에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최현섭, 1986: 737).

제5차 시기의 교육 과정은 언어 사용 기능의 의미에 대한 학문적 고찰과 함께, 이질적인 세 학문의 복합체로서 국어 교과를 규정하고 있는 제4차 교육 과정을 비판하면서 하나의 교과로서 성립되고 국어과 교육의 全過程을 일관성 있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언어 사용 기능을 핵으로 하여 국어과 교육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제4차 교육 과정에서는 <언어>와 <문학>을 국어과 교육의 지식 기반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교육 과정에서는 내용 영역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구성하고 있다. 실제 교육 과정의 모습은 제4차와 유사해졌지만 교육 과정의 의도를 부각시키려고 언어 사용 기능의 중요성을 좀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노명환 외, 1991: 33).

제6차 교육 과정 시기의 내용 영역은 평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제5차와 동일하다. 그렇지만 내용 영역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제시하여, <언어 사용 활동의 형태(기능 및 태도)>, <언어 사용 활동의 목적>, <언어 사용 활동의 기저 지식>을 국어과 교육을 구성하는 세 가지 주요 측면으로 보았다(박영목, 1993: 257). 이것은 세 가지의 측면을 통해서 국어과 교육에

관한 입장(언어 사용 기능 중시, 배경 학문이 제공하는 개념 중시, 국어 교육과 문학 교육의 이원적 구조 중시)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한 시도라고 하겠다. 제7차 교육 과정도 6차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새로운 개정 작업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시작하는가?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국어 교육학’의 정립이, 그 동안 행하여 온 국어과 교육이, 하루아침에 옳은 길 (옳은 길이 있다면)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좀 모순이 덜한 길이 있다면 그것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 과정에 진술된 내용 영역은 평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4차, 5차, 6차, 7차 시기의 내용 영역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교육 과정에 담겨 있는 의도를 좀더 분명히 하고자 교육 과정 개발 과정의 고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어교육학에 담겨야 할 ‘내용’을 논의할 때, 교육 과정의 개정 과정의 고민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교육 과정의 개정 작업이 중요하다 하겠다.

Ⅲ. 새로운 국어과 교육 과정 개정에서의 ‘내용’

1. 단계별 내용

현재의 내용 영역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되어 있고,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1년을 단위로 위계를 두고 있다. 일 년을 단위로 위계를 두는 것의 불합리성은 5차 국어과 교육 과정 개정 때부터 거론되었었다.¹⁾ 교육 과정 개발 체제가 상시 연구 수시 개정으로 간다면, 각 교과와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는 체제라면, 새로운(8차) 교육 과정에서는 ‘학년별 내용’이 ‘단계별 내용’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의 안을 거론할 수 있을

1) 5차 국어과 교육 과정 개발 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출한 심의본은 국민학교 1-2학년/3-4학년/5-6학년, 중학교 1-3학년으로 단계화하였다.

것이다.²⁾

1~2학년/3~4학년/5~6학년/7~9학년/10학년(5단계)

1~3학년/4~6학년/7~9학년/10학년(4단계)

1~3학년/4~6학년/7~10학년(3단계)

지금 교육 과정은 1학년에서 10학년까지가 동일한 '내용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 체계도 '단계'에 따라 '내용 영역'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내용 영역을 고수한다면 다음과 같은 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단계

- ① 1~2학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 ② 3~4학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 ③ 5~6학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
- ④ 7~9학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
- ⑤ 10학년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

4단계

- ① 1~3학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 ② 4~6학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 ③ 7~9학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
- ④ 10학년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

3단계

- ① 1~3학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 ② 4~6학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 ③ 7~10학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

2) 김상욱(2003: 126)은 문학교육과정을 '1단계: 1학년~4학년, 2단계: 5학년~7학년, 3단계: 8학년~10학년, 4단계: 선택중심교육과정'으로 나누고 있다.

학교급 내지 단계별, 학년별로 같은 교육 내용(내용 영역)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10년 동안 같은 비중으로 모든 영역을 다 지도하려는 의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교육 과정의 의도일 뿐 실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지금도 교과서를 통해 영역별 비중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되어 있다.

단계별로 영역별로 내용 영역을 위와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내용 영역을 사고 과정 중심으로 〈이해〉, 〈표현〉 두 영역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해〉, 〈표현〉의 내용 영역 구분은 국어과 교육 과정의 체계를 부여하는 데 훨씬 용이하다고 생각된다.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배워야 할 것을 단계에 따라 제시한다면, 〈국어 지식〉, 〈문학〉의 위치가 더욱 명확히 제시될 수 있다. 〈이해〉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듣기, 읽기, 문학’, 〈표현〉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말하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이 될 것이다. 또한, 국어과 교육 과정에 편입될 ‘보기, 매체’가 국어과 지도 방법의 하나로 취급될 지, 영역으로 자리매김 할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이해〉, 〈표현〉으로 느슨한 내용 영역이 설정되어 있으면 좀더 쉽게(?) 국어과 교육 과정 속에 들어 올 것이다.³⁾ 이렇게 되면 1학년~10학년까지의 내용 영역은 〈이해〉, 〈표현〉으로 구성하고, 하위 범주에서 차이를 둘 수 있을 것이다.

2.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내용’

제6차, 제7차에서부터 제시된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는 교육 과정이 지니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 교육 과정 체계 상, ‘학년별 목표’가 지니고 있던 문제를 해결했고, 막연했던 국어과 교육의 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구실을 했다. 제6차, 7차에 제시된 ‘내용 체계’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어과 교육의 체계화에 큰 역할을 했음은 인정해야 한다.

3) 노명완(2003: 258)은 국어과의 하위 영역은 내용의 관련성이나 교육의 편리성을 위해 잠정적으로 〈말하기·듣기〉, 〈읽기·문학〉, 〈쓰기·문법〉, 〈언어〉의 4영역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교육 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국어과 교육의 내용 체계를 보면, ‘내용’을 여섯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은 4개의 범주로, 그 범주는 몇 개의 하위 범주로 나누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본질/원리/태도/실제’의 네 범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내용 체계에 따라 학년별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⁴⁾

각 영역별로 학년별 내용을 제시한 것을 살펴보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고 있다. 이런 면에서도 내용 영역을 <이해>, <표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본질>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언어 활동의 통합성을 고려하면, 매 학년마다 같은 진술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이해>, <표현>으로 내용 영역을 나누고, 단계별로 내용 항목을 제시하면 ‘겹침’을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1학년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가 인간의 삶에서 필요함을 안다.
- 2학년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음을 안다.
- 3학년 지식과 경험이 말(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함을 안다.
- 4학년 듣기(말하기, 읽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안다.
쓰기에는 과정이 있음을 안다.
- 5학년 들을(말할) 때에는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안다.
읽기 상황에는 글의 종류, 읽기의 목적과 방법 등이 관련됨을 안다.
쓰기 상황에는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등이 관련되어 있음을 안다.
- 6학년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가 의미 형성 과정임을 안다.
- 7학년 듣기와 읽기(읽기와 쓰기/말하기와 듣기/쓰기와 말하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안다.
- 8학년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가 문제 해결 과정임을 안다.
- 9학년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가 사회·문화적 과정임을 안다.
- 10학년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듣기(말하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안다.
읽기(쓰기)가 의사 소통 행위임을 안다.

4) 본질과 원리라는 용어에 관해서 노명완 외(2003: 256-257) 참조.

〈원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듣기〉와 〈말하기〉의 상호 작용적 특성을 고려하여 듣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의 교육 내용이 유사한 경우, 관련 내용을 동일 학년에 함께 제시하여 학습의 밀도를 높이도록 하였고 하지만(예를 들면 6학년: 여러 가지 표현의 의미를 알아보며 듣는다.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다. 8학년: 들은 내용의 응집성을 판단한다. 응집성 있게 조직하여 말한다. 등), 옹색한 해설이다(교육부, 1999: 23).

3. 〈국어 지식〉 영역의 ‘내용’

〈국어 지식〉 영역을 살펴보면 다른 영역의 진술 방식과 많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국어 지식〉이란 영역 명을 생각하면 다른 영역과 ‘다름’이 마땅하다. 그러나 ‘방법’에서 제시한 ‘지식’에 대한 설명보다 탐구 학습을 통하여 지식을 생성해 내는 경험을 강조하되, 학습한 내용이 창조적 국어 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해설을 살펴보면 여전히 ‘지식’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지식’ 부분이 철저히 가르쳐야 한다. 활동만으로 지식을 전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국어 지식〉이란 영역명이 7차 교육 과정에서부터 쓰이고 있는데 이 영역명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해설서를 통하여 표현, 이해 영역과의 상호 교섭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식’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보다 〈이해〉, 〈표현〉으로 내용 영역을 나누고, 그 안에서 〈국어 지식〉의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하겠다.

학년별로 제시되어 있는 〈국어 지식〉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굳이 〈국어 지식〉이라는 영역 속에 있을 필요가 없다. 특히 1학년~6학년까지는 〈표현〉, 〈이해〉 활동 안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고, 7학년~10학년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을 확실히 다지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다음 〈국어 지식〉 영역의 내용 항목을 살펴보면 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도 1학년~6학년까지의 〈국어 지식〉은 언어 사용 기능 속에 충분

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1학년

- 한글의 낱자의 음가를 안다.(읽기)
- 우리말이 있음을 알고 우리말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지닌다.(읽기)

2학년

- 자음과 모음을 구별한다.(읽기—1학년)
- 문장 안에서 꾸며 주는 말의 기능을 안다.(읽기, 쓰기)
- 고운 말을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말하기)

3학년

- 우리말에는 어순이 있음을 안다.(쓰기)
- 우리말에는 높임말이 있음을 안다.(읽기)
- 이어 주는 말의 기능을 안다.(쓰기)
- 바른말을 사용하려는 태도를 가진다.(말하기)

4학년

- 용언의 기본형을 안다.(읽기, 쓰기)
- 문장의 종류를 안다.(읽기)
- 어휘의 개념을 안다.(읽기)
- 낱말과 낱말 사이의 유의 관계, 반의 관계, 하의 관계를 안다.(읽기)
- 문화 유산인 우리말과 우리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지닌다.(말하기, 쓰기)

5학년

- 언어가 창조적으로 쓰임을 안다.(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 우리말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말이 있음을 안다.(읽기)
- 문장 성분의 개념과 기능을 안다.
- 표준어와 방언의 개념을 안다.(말하기)
- 공식적인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한다.(말하기)
- 상황에 따라 방언과 표준어를 구별해서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말하기)

6학년

- 언어에는 규칙이 있음을 안다.(말하기, 쓰기)
- 언어가 기호임을 안다.(말하기, 쓰기)
-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의 개념을 안다.(읽기)
-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 관계를 안다.(쓰기, 읽기)

-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한다.(말하기)
- 상황에 따라 표준 발음으로 말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말하기)

7학년

-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관계를 안다.
- 음절의 개념을 안다.
- 형태소와 낱말의 개념을 안다.
- 은어, 전문어, 속어, 비어, 유행어의 개념을 안다.(쓰기, 읽기의 제재 종류에 속하는 것)
- 동음 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을 안다.(읽기)
- 담화의 구성을 안다.
- 국어를 순화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8학년

- 언어의 사회성을 안다.
- 언어의 역사성을 안다.
- 국어의 음운 체계를 안다.
- 국어의 조어법을 안다.
- 관용어의 개념을 안다.(쓰기, 읽기 제재의 한 종류)
- 발화의 기능을 안다.
- 국어 사용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파악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말하기, 쓰기)

9학년

-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안다.
-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을 안다.
- 품사의 분류 기준과 각 품사의 특성을 안다.
- 각 문장 성분의 특징과 문장의 구성 원리를 안다.
- 문장의 구조로 말미암아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현상을 안다.(읽기, 쓰기)
-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말하기, 쓰기)
-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말하기, 쓰기)

10학년

- 언어와 주변 세계의 관계를 안다.
- 국어의 개략적인 역사를 안다.
- 문법 요소들의 기능을 한다.

- 문장의 짜임새를 안다.
-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을 안다.
-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말하기, 쓰기)
-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말하기, 쓰기)
- 국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말하기, 쓰기)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교육 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국어 지식>을 살펴보면 1학년 6학년까지의 내용 항목은 읽기, 말하기, 쓰기 등에서 다루어 질 것이고, 7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내용 항목 중 ‘어휘’라는 하위 범주에 속해 있는 것들, <태도> 범주에 속해 있는 것들은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영역에서 다루어 질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지식 체계로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밑줄 그은, 몇 안 되는 항목들이다.

<국어 지식>에 제시되어 있는 각 내용 항목은 지나치게 범위가 좁다 (1~6학년).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내용 영역에서는 항목 수가 줄었는데 (학습 내용의 적절화와 관련지어) <국어 지식> 영역에선 그렇지 않다. 물론 각 내용 항목이 포괄하는 범위가 좁은 데 이유가 있겠는데, <국어 지식>이란 영역을 1학년부터 설정하더라도 일관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어 지식>은 ‘국어의 본질/국어의 이해와 탐구/국어에 대한 태도/국어의 규범과 적용’으로 내용을 범주화하고 있다. 이 부분 중, ‘국어의 이해와 탐구’, ‘국어에 대한 태도’, ‘국어의 규범과 적용’ 범주는 언어 사용 영역에서 포괄하고, ‘국어의 본질’은 내용 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4. <문학> 영역의 ‘내용’

<읽기> 영역과 <문학> 영역을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유사한 항목도 있으나 ‘내용 체계’에 따라 내용 항목이 선정되어 있으므로 <읽기>와 <문학>은 상이한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글’과 ‘작품’이란 용어로 <읽기>와 <문학> 영역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교육 과정에서 <읽기>와

〈문학〉이 이렇게 각자 영역을 고수하고 있으나 교과서에 와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읽기' 책에서 〈문학〉 영역을 다루고 있다. 교육 과정에서 독립된 영역으로 〈문학〉을 다루게 될 때 교과서를 구성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영역의 구분이 실제의 교육 장면에서 '엮매임'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교과서 구성 시 〈읽기〉 영역의 단원에 문학 제재를 사용하지 못할 때의 어려움이 생각해 보면, 체계에 엮매여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7차 읽기와 문학 영역의 내용 항목

읽 기	문 학
1학년 -읽기가 인간의 삶에서 필요함을 안다. -글자의 짜임을 알고, 글자를 읽는다. -문장 부호의 쓰임에 유의하며 글을 읽는다. -글을 정확하게 소리내어 읽는다. -대강의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책을 즐겨 읽는 습관을 지닌다.	1학년 -작품에 표현된 말에서 재미를 느낀다.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모습이나 성격을 상상한다. -작품을 즐겨 찾아 읽는 습관을 지닌다.
2학년 -읽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음을 안다. -낱말, 구절, 문장을 정확한 발음으로 읽는다. -가리키는 말의 내용을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장면을 떠올리며 소리내어 읽는다. -바른 자세로 책을 읽는 태도를 지닌다.	2학년 -작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의 재미를 느낀다. -이어질 내용을 상상한다. -작품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읽는 습관을 지닌다. -재미있는 말이나 반복되는 말을 넣어서 글을 쓴다.
3학년 -지식과 경험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함을 안다. -소리나 모양이 같은 낱말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생각하며) 글을 읽는다. -내용을 확인하며 글을 읽는다.	3학년 -작품에는 일상의 세계와 비슷한 상상의 세계가 담겨 있음을 안다. -작품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을 파악한다.

-내용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분위기를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주의를 집중해서 읽는 태도를 지닌다.	-작품의 분위기를 살려서 낭독한다. -작품에 나오는 인물이 되어 본다. -작품을 스스로 찾아 읽는 습관을 지닌다.
4학년 -읽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안다. -국어 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는다. -주제를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글에 알맞은 제목을 붙인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태도를 지닌다.	4학년 -작품의 구성 요소를 안다. -작품의 구성 요소를 통하여 주제를 파악한다. -작품의 구성 요소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한다.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삶의 모습을 이해한다.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사고 방식을 이해한다. -읽는 작품에 대해 독서록을 작성하는 태도를 지닌다.
5학년 -읽기 상황에는 글의 종류, 읽기의 목적과 방법 등이 관련됨을 안다. -문맥을 고려하여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사실과 의견을 표현한 부분을 구별하며 글을 읽는다.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며 글을 읽는다.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글을 읽는다. -어휘 사용이 적절한지 알아보며 글을 읽는다.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며 글을 읽는다. -도서관에서의 읽을거리를 찾아 읽는 습관을 지닌다.	5학년 -작품은 읽는 이에 따라 수용이 다를 수 있음을 안다. -작품에서 사건의 전개 과정과 인물의 관계를 이해한다. -작품에서 인상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는다.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다양한 삶을 이해한다. -작품의 일부분을 창조적으로 바꾸어 쓴다.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표현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6학년 -읽기가 의미 형성 과정임을 안다. -다양한 표현의 의미를 알아보며 읽는다.	6학년 -문학의 갈래를 안다. -작품에서 사건의 전개와 배경의 관계를

-글을 읽고,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 -주장에 대한 근거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글을 읽는다. -문제 해결 방안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글에 나오는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다양한 읽을거리를 찾아 읽는 태도를 지닌다.	- 파악한다. -작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감각적 표현을 음미한다. -작품에 창의적으로 반응한다. -작품에 반영된 가치나 문화를 이해한다. -작품을 다른 갈래로 표현한다. -가치 있는 작품이나 영상 자료 등을 선별하며 읽는 태도를 지닌다.
7학년 -읽기와 쓰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안다. -내용을 메모하며 글을 읽는다.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내용의 통일성을 평가하며 글을 읽는다. -글의 내용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쓰는 태도를 지닌다.	7학년 -소통 행위로서의 문학의 특성을 안다. -문학과 일상 언어의 관계를 이해한다. -작품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한다. -작품 속에 드러난 갈등의 해결 과정과 인물의 심리 상태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작품 속에 드러난 역사적 현실 상황을 이해한다.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인물의 행동을 파악한다. -작품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 나타난 그 시대의 가치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8학년 -읽기가 문제 해결 과정임을 안다. -내용과 내용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표지에 유의하며 글을 읽는다. -글 전체의 짜임을 파악하며 읽는다.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읽은 글의 일관성을 평가한다.	8학년 -작품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창조된 세계임을 안다. -작가가 독자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한 언어적 표현의 특징과 효과를 파악한다. -작품이 누구의 눈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한다.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세계관과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관련지어 이해

-여러 종류의 사전을 글 읽기에 활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한다. -여러 갈래의 글을 쓴다. -작품에 드러난 우리 민족의 전통이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9학년 -읽기가 사회·문화적 과정임을 안다. -문장의 중요도를 판정하여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러 글을 읽고, 주제나 관점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파악한다. -읽는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판단한다. -표현의 효과를 평가하며 글을 읽는다.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찾아 활용하는 습관을 가진다.	9학년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질을 안다. -한국 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작품에 쓰인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이해한다.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개성을 파악한다.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과 작품 창작 동기를 관련지어 이해한다.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을 찾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쓴다. -작품 세계를 창조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10학년 -읽기가 의사 소통 행위임을 안다. -필요한 정보를 찾으며 글을 읽는다. -정보를 재조직하며 글을 읽는다. -표현의 효과에 대하여 평가하며 글을 읽는다. -읽는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	10학년 -문학의 기능을 안다. -작품의 구성 요소와 그 기능을 이해한다. -문학의 갈래에 따른 작품의 미적 가치를 파악한다. -작가, 작품, 독자의 관계를 알고, 이를 수용에 능동적으로 활용한다.
-읽기 활동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읽는 태도를 지닌다.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작품 수용에 능동적으로 활용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문학적으로 표현한다. -한국 문학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밑줄 그은 내용 항목은 지시하는 범위가 좁거나, 활동의 예에 제시할 내용

박영목(1996)은 문학 텍스트의 읽기 지도 내용이 비문학 텍스트의 읽기 지도 내용과 무관한 체계와 논리에서 선정되는 것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안겨주고 나아가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읽기 지도 내용을 선정할 때 독서 상황 변인을 고려해야 하는데, 독서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독서 전략의 계열화 방안을 예로 들어 다음 표를 제시했다.

〈표 2〉 독서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독서 전략의 계열화

독자 유형	독서자료 유형	독서 목적	독서 전략(활동)
유치원	그림책	즐기기	그림 보고 이야기 하기
1학년	일상 생활에 관한 짧은 글	정확하게 소리내어 읽기	모든 단어를 천천히 그리고 주의 깊게 읽기
3학년	식물의 성장에 관한 글	교과서에 제시된 질문에 답하기	질문을 먼저 읽고,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읽기
7학년	청소년 소설	즐기기, 독후감 쓰기	독후감의 내용을 마련하면서 읽기
9학년	백경	상징과 주제에 관해 토의할 수 있기	상징적인 표현과 인물의 행동을 통해 소설의 주제 파악하기
11학년	자연 현상에 관한 설명 구조의 텍스트	텍스트에 제시된 정보의 구조 및 재표상	체계적인 학습 전략의 활용, 텍스트의 조직 구조 활용

위와 같은 표는 교육 과정 내용 항목의 선정 시 〈말하기〉, 〈듣기〉, 〈쓰기〉, 〈문학〉에서도 효과적으로 쓰인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읽기〉와 〈문학〉을 엄격하게 나누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임을 지적해 둔다. 영역을 엄격히 나눔으로 해서 차별성을 부각시키게 되고 결국 지식 위주로 갈 가능성이 크다(4차 교육 과정 참조). 노명완(2003: 257)도 읽기와 문학을 합치면 훨씬 풍부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문학 중심의 국어과 교육으로, 문학 중심의 읽기 지도로 나아가면, 앞서의 〈읽기〉와 〈문학〉의 내용 항목을 ‘해쳐 모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새로운 국어과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안)

을 그려보자면 다음과 같다.

영역 범주	이 해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표 현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비고
본질			
원리			
태도			
실제			

IV. 새로운 국어과 교육 과정 개정에서 고려할 점

1. ‘내용’ 항목의 균질화, 위계화 고려

교육 과정 내용은 진술될 때 평면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음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더라도 내용 항목들을 제시할 때는 학년별로, 단계별로 폭과 깊이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정혜승(2002), 전은주(2003)은 7차 교육 과정이 명확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내용 항목들의 진술 범위가 너무 좁은 경우,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가 있어, 진술된 내용의 범위가 편차가 심하고, 따라서 일관성,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다(전자의 예: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어투로 말한다. 후자의 예: 말하기가 사회·문화적 과정을 안다). 위에서 지정한 문제 뿐 아니라 영역별 내용의 제시에 있어서 〈본질〉 부분은 중복되는 것이 많고, 〈원리〉도 의도적으로 중복시킨 것이 보인다. 그리고 활동의 예에 포함될 것도 내용으로 제시된 것도 있다(앞서 제시했던 읽기 영역 참조). 새로운 교육 과정이 큰 변화를 주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정-내용 항목

의 균질화⁵⁾은 있어야 할 것이다.

2. 〈태도〉 범주의 ‘내용’ 고려

1학년~10학년까지 〈태도〉 범주는 대부분 태도, 습관에 치중해 있다. 해설서에는 〈태도〉 범주의 교육 내용은 흥미나 동기 유발에서 사회적 습관 형성의 순으로 위계를 정해 배열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듣기의 〈태도〉 부분을 살펴보면 위의 해설이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으나 구체적으로 교육 과정 내용으로서 제시되었을 때 강조해서 길러져야 하는 〈태도〉 범주의 내용이 습관, 태도에 국한되어야 할지 고려해 볼 문제이다. 내용 체계의 〈태도〉 범주와도 맞지 않다⁵⁾(노명완, 2003: 239-247).

- 1학년 즐겨 듣는 습관을 지닌다.
- 2학년 바른 자세로 듣는 태도를 지닌다.
- 3학년 주의를 집중해서 듣는 태도를 지닌다.
- 4학년 예절바르게 듣는 태도를 지닌다.
- 5학년 끝까지 듣는 태도를 지닌다.
- 6학년 여러 가지 매체에서 관심 있는 내용을 찾아 듣는 태도를 지닌다.
- 7학년 메모하면서 듣는 습관을 지닌다.
- 8학년 상대의 비판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9학년 말하는 이에 적절히 반응하면서 듣는 태도를 지닌다.
- 10학년 자신의 듣기 활동을 조절하면서 듣는 태도를 지닌다.

3. ‘내용’ 항목의 겹침 현상 고려

1학년~10학년까지의 〈원리〉 범주의 내용 항목들은 내용 체계에 맞추어 제시되어 있다. 앞서 〈본질〉 부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원리〉 범주의 내용 항목도 많이 겹쳐 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5) 지식과 기능, 태도를 분명하게 구분짓기가 어려우며, 태도 교육은 지식과 기능 등 인지적 교육 내용과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영역의 〈원리〉 범주에서 절반 정도의 내용 항목이 겹친다면 지나치게 학습할 내용이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도 〈이해〉, 〈표현〉으로 영역을 나누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말하기〉와 〈쓰기〉 영역을 비교했을 때 겹침 현상이 30% 정도 드러나고 있다.

〈표 3〉 7차 말하기와 쓰기 영역의 내용 항목

말하기	쓰기
1학년 재미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말한다.	1학년 재미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글을 쓴다.
2학년 상대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화제를 선정하여 말한다.	2학년 읽을 사람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글을 쓴다.
3학년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내용을 전개하여 말한다. 3학년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잘 드러나게 내용을 전개하여 말한다.	3학년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글을 쓴다. 3학년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4학년 주제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여 말한다. 4학년 시간이나 공간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여 말한다.	4학년 주제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여 글을 쓴다. 4학년 시간이나 공간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여 글을 쓴다.
5학년 조사나 관찰을 통하여 내용을 선정해 말한다. 5학년 분류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말한다. 5학년 분석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말한다.	5학년 조사나 관찰을 통하여 내용을 선정해 글을 쓴다. 5학년 분류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글을 쓴다. 5학년 분석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글을 쓴다.
6학년 면담을 통하여 내용을 선정해 말한다. 6학년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의견을 제시한다. 6학년 문제와 해결의 짜임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말한다.	6학년 면담을 통하여 내용을 선정해 글을 쓴다. 6학년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알맞은 근거를 제시하며 글을 쓴다. 6학년 문제와 해결의 짜임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글을 쓴다.
7학년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말한다.	7학년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글을 쓴다.

7학년 내용을 통일성 있게 조직하여 말한다.	7학년 내용을 통일성 있게 조직하여 글을 쓴다
8학년 토론을 통하여 내용을 생성해 말한다. 8학년 응집성 있게 내용을 조직하여 말한다.	8학년 토론을 통하여 내용을 생성해 글을 쓴다 8학년 일관성 있게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
9학년 전달 효과를 고려하여 내용의 전개 방식을 조절하여 말한다.	9학년 표현의 효과를 고려하여 내용의 조직 방식을 조절하며 글을 쓴다.
10학년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내용을 적절하게 생성하여 말한다. 10학년 내용 조직의 일반 원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하여 말한다. 10학년 표현과 전달의 일반 원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말한다.	10학년 상황에 따라 내용을 적절하게 생성하여 글을 쓴다. 10학년 내용 조직의 일반 원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 10학년 표현의 일반 원리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글을 쓴다.

4. 학습량의 적정화 고려-7차와 6차의 학년별 내용 비교

7차와 6차의 교육 과정에 제시된 '내용'의 양을 비교했을 때 학습량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 과정의 '내용'을 가지고 학습량의 적정화를 논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10학년 읽기 내용 항목이 6차의 13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줄었으므로 학습량이 1/2로 줄었다고(학습량의 적절화)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7차 교육 과정에서는 학년별로 내용이 중복되는 일은 없다. 이것은 학교급으로 나누지 않고, 1학년부터 10학년까지를 하나의 기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학교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본다면 겹쳐지는 게 타당하기도 하다. 7학년 '내용'에는, 7학년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만 학습자의 입장에서선 1학년부터 7학년까지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도 학습량의 적정화를 논하기는 단순하지 않다.

그래도 학습량의 적정화를 논하려면, '내용' 진술의 균질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각 학년별 '내용' 항목 수가 그대로 학습량의 많고 적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7차와 6차 교육 과정에서 <읽기> 영역을 비교해 보면 어떤 면에서 7차의 경우 학습량이 적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게 한다.

〈표 4〉 7차와 6차 읽기 영역의 내용 항목

7차 읽기 10학년	6차 읽기 고등 학교 국어
(1) 읽기가 의사 소통 행위임을 안다. -6차(1) • 의사 소통으로서의 읽기의 특성을 설명한다. • 읽기와 듣기, 말하기, 쓰기를 의사 소통 행위의 측면에서 비교한다. (2) 필요한 정보를 찾으며 글을 읽는다. •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고, 읽는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는다. • 필요한 정보를 찾아 내는 방법에 대해 토의한다. (3) 정보를 재조직하며 글을 읽는다. -6차 (6)(7)(8)(9) •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재조직하여 글을 읽는다. • 글쓴이가 글을 쓸 때에는 어떤 정보는 선택하고 어떤 정보는 생략했다는 점에 유의하며 글을 읽는다. (4) 표현의 효과에 대하여 평가하며 글을 읽는다. -6차(10) •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보며 글을 읽고, 그 효과를 평가한다. • 주제나 글감이 같은 여러 글을 읽고, 표현상의 특징을 비교하고 평가한다.	<읽기의 본질> (1) 의사소통행위로서의 읽기의 특성을 안다. (2) ~ 효과적인 읽기의 방법을 안다. (3) ~ 읽기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안다. <읽기의 원리> (4) 글의 유형과 읽는 목적에 맞게 읽기의 방법을 선택한다. (5) 단어의 다양한 의미와 단어들 사이의 의미 관계를 알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휘력을 확장한다. (6) 구조가 복잡한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 관계를 말한다. (7) 글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문단과 문단 사이의 연결 관계에 유의하며 글 전체의 짜임을 파악한다. (8) 한 편의 글을 끝까지 읽고, 중심 내용이나 주제를 파악한다. (9) 글을 읽고, 경험, 지식, 문맥 등을 활용하여, 생략된 내용이나 세부 내용을 추론한다. (10) 주제나 소재가 같은 여러 글에서 구성 및 표현의 차이를 파악하고, 그 효과에 대해 평가한다.

(5) 읽는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 -6차(12) •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글을 비교하며 읽고, 읽은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해 토의한다. • 읽은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본다. (6) 읽기 활동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읽는 태도를 지닌다. • 항상 자신의 읽기 활동을 인식, 점검, 보완하면서 글을 읽는다. • 자신이 읽기 활동을 조절하면서 글을 읽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토의한다. • 유능한 독자의 읽기 전략을 조사한다.	(11) 글에 분명히 나타나 있거나 숨어 있는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한다. (12) 글의 신뢰성, 정확성, 공정성 등에 대해 토의하고,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13) 여러 가지 읽을거리를 폭넓게 찾아 읽고, 읽은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진다.
---	---

7차 교육 과정에서는 학년별 내용을, '내용'과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 과정이 이런 체제를 갖는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6차의 학년별 '내용'을 살펴보면 7차의 '내용'과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를 묶어 제시한 것에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점에서도 학습량의 적정화를 논하기는 어렵다. 다음과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7차-말하기-7학년

(3) 내용을 통일성 있게 조직하여 말한다.

[기본] 효과적인 내용 전개 순서를 생각하여 메모하고, 메모한 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통일성 있게 조직하여 말한다.

[심화] 자신이 말한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한다.

6차-말하기-중3

(4) 내용의 효과적인 제시 순서를 생각하여 메모해 보고,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관련되게 조직하여 말한다.

7차-쓰기-7학년

(4)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쓴다.

[기본] 주어진 속담, 관용 표현, 격언, 명언 등 을 적절히 인용하여 글을 쓴다.

[심화] 주제를 나타내기에 알맞은 속담, 관용 표현, 격언, 명언 등을 찾고, 이를 인용하면서 글을 쓴다.

6차-쓰기-중2

(6)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토의해 보고, 속담이나 격언, 또는 다른 사람의 말 등을 적절하게 인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또, 7차 교육 과정도 6차와 같은 방식으로 내용 항목을 진술한 것도 있다. 다음과 같은 예를 보면 7차 교육 과정과 내용 항목 진술 방식이 다름(6차의 진술 방식)을 알 수 있다.

7차-읽기-9학년

(2) 문장의 중요도를 판정하여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3)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러 글을 읽고, 주제나 관점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파악한다.

5. '내용' 항목의 제시 방법 고려

'내용' 항목 제시 방법은 교육 과정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교과서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특히 그렇다. 교육 과정 중심의 교육을 생각한다면 교육 과정은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교육 과정-교육 과정 해설-교과서'의 단계를 거쳐 현장의 수업으로 실행되는 교육 과정이 온전히 실행되기 위해선 교육 과정의 상세화가 요구된다. 이 상세화는 '내용' 항목의 문제이기보다는 '내용' 항목을 지도할 때, 어떤 자료로, 어떤 방법으로 지도할 것인지, 평가 방법이나 평가 자료는 어떻게 구안할 것인지 등, '내용' 항목마다 '방법'과 '평가'가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지금의 '내용'과 '수준별 활동의 예'로 내용 항목을 제시하는 것보다

자세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지금 ‘방법’과 ‘평가’에 제시되어 있는 것보다 구체적인 진술이 되어야 도움이 될 것이다. ‘4. 방법, 5. 평가’의 진술은 지금 정도의 수준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담는다고 해도 ‘내용’ 부분은 보다 더 상세화 되어야 한다.⁶⁾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며,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등의 사항이 교육 과정에 담겨야 한다. 예를 들면 ‘내용’ 부분과 더불어 자료 및 활동, 평가 등이 예시되는 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내 용	자 료	활동(방법)	평가(방법, 자료, 결과 활용 등)

V. 맺음말

국어과 교육 과정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곱 차례의 제·개정을 거쳤고, 지금 새로운(8차) 교육 과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국가 사회의 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 등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 주5일제 수업으로 전반적으로 편제가 바뀔 것이고, 국어과의 시간 수가 줄어들게 된다면, 교육 과정 논의의 상당 부분이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그동안 1종 도서로 되어 있던 7학년~10학년의 ‘국어’ 교과서가 2종화 되면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일반 선택 과목인 〈국어 생활〉, 심화 선택 과목인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의 체제도 변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수준별 교육 과정도 현실에 비추어 좀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이인제, 2005: 80-85).

6) 교육 과정의 ‘대강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국어 과목의 경우, 교과서를 2종화하면 교육 과정의 ‘방법’, ‘평가’ 부분이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변화 속에서 교육 과정의 개정을 통해 국어과 교육의 질적 변환을 가져오기를 바란다. 그런 기대로 '내용' 부분을 미시적으로 살펴보았다. 교육 과정에 관한 제반 문제는 공동 사고를 요한다. 그래서 개정 작업은 많은 전문가들의 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숙의와 합의의 과정을 활발히 하기 위한 전초가 되기 위한 것이다. 수시로 부분적인 개정이 가능해진 체제가 교과 교육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 본 논문은 2005. 6. 26. 투고되었으며, 2005. 7. 13. 심사가 시작되어 2005. 7. 27.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대행(2005), “교육 과정의 기반을 위한 단상”, 『함께 여는 국어교육』 2005년 봄호, 통권62호.
- 김대행(2004), “서술에서 수행으로”, 제29회 학술발표대회 주제: 국어교육 연구의 방향, 국어교육학회.
- 김상욱(2003), 『문학교육의 길 찾기』, 나라말.
- 김상욱(2004), “시 읽기의 전제와 방법”, 제3차 학술발표대회: 文學讀書教育의 理論과 實際, 문학과학교육연구소.
- 노명완 외(2003), 『창조적 지식기반사회와 국어과 교육』, 박이정.
- 노명완 외(1990), 『국어과교육론』, 갑을출판사.
- 박영목 외(1993), 『국민학교 교육과정해설』, 교육과학사.
- 박영목(1996), “읽기 영역 지도 내용 체계화 방안(Ⅱ)’에 대한 토론했문”, 『읽기 영역 교육 과정 내용의 체계화 연구』, 서울사대 국어교육연구소.
- 박인기(2004), “재개념화, 그리고 가로지르기”, 제29회 학술발표대회 주제: 국어교육 연구의 방향, 국어교육학회.
- 손영애(1996), “읽기 영역 지도 내용 체계화 방안(Ⅱ)”, 『읽기 영역 교육 과정 내용의 체계화 연구』, 서울사대 국어교육연구소.
- 손영애(2004), 『국어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 박이정.
- 신헌재(2004), “초등 국어 교육 50년의 반성과 그 전망”, 『학교 교육 50년 반성과 전망』, 한국 교원대학교.
- 이용주(1995), 『國語教育의 反省과 改革』,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인제(2004), “국어과 교육과정 실태 및 개선 방향”,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인제(2005), “국가 수준의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대상과 방법, 국가수준 교육과정, 무엇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연구자료 ORM 2005-3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전은주(2003),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실행(實行)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향”, 『국어교육 110』,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정혜승(2002), “국어과 교육과정 실행 요인의 작용 양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천경록(1997), “말하기 · 듣기의 교육 내용 구성과 교과서 개발”, 『97 말하기 · 듣기 영역 교육과정 내용의 체계화 연구 보고서』, 서울대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 최현섭(1986), “국어과 교수-학습 모형의 탐색”, 『論文集』第20輯, 인천교육대학.
- 최현섭 외(2004),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 한철우(2004), “국어교육 50년, 한 지붕 세 가족의 삶과 갈등”, 『학교 교육 50년 반성과 전망』, 한국교원대학교.

한철우 외(2004), “표현·이해 교육 연구의 방향과 과제”, 제29회 학술발표대회 주제: 국어교육 연구의 방향, 국어교육학회.

자료 : 6차, 7차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 해설.

〈초록〉

새로운 국어과 교육 과정 개정에 관한 소론

손영애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과정의 개정 체제가 '수시'로, '부분'으로 바뀐다고 한다. 국어과 교육 과정도 이러한 변화 속에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본고는 국어과 교육 과정의 '내용'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매 시간 현장 수업의 토대가 되는 것이 국어과 교육 과정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어과 교육 과정의 내용 영역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되어 있고,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1년을 단위로 위계를 두고 있다. 본고는 학년을 단위로 위계를 두는 것보다,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5 단계, 혹은 4단계, 혹은 3단계로 위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용 영역을 크게 2 영역-〈표현〉, 〈이해〉-으로 나누고, 지금의 여섯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내용 항목들은 단계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다.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내용 영역이 모두 다 다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새로운 영역(보기, 매체 등)으로 국어과에 들어올 것들도 느슨한 영역 체계 속에 자리잡기가 쉬울 것이다. 지금 〈말하기〉, 〈쓰기〉, 〈국어 지식〉 영역은 대개 〈표현〉 영역에서, 〈듣기〉, 〈읽기〉, 〈문학〉 영역은 〈이해〉 영역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언어 사용 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내용 체계는 '본질/원리/태도/실제'의 범주로 되어 있다. '본질', '원리' 범주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내용 영역과 많이 겹치고 있다. 〈표현〉과 〈이해〉로 내용 영역을 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 '겹침' 현상을 줄일 수 있고, '학습 내용의 적정화'를 이룰 수 있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 〈국어 지식〉 영역의 내용 체계는 '국어의 본질/국어의 이해와 탐구/국어에 대한 태도/국어의 규범과 적용'의 범주로 되어 있다.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제시된 내용 항목들을 보면 체계적인 지식으로 가르쳐져야 할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국어의 본질'은 교과서 내용 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고, 나머지 범주에 제시된 내용 항목들은 언어 사용 영역에 포괄될 수 있을 것이다. 〈문학〉 영역은 〈읽기〉 영역과 합쳐질 수 있으리라 본다. 문학적 텍스트를 읽는 행위와 비문학적 텍스트를 읽는 행위가 전혀 별개의 것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 과정 개정은 국어과 교육에 관여하는 전문가 집단의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개인적 의견으로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공동의 의견을 도출하는 데 필자의 의견을 개진해 보았다.

【핵심어】 7차 국어과 교육 과정, 내용 영역, 내용 체계, 내용 항목, 단계, 위계, 표현, 이해, 범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

〈Abstract〉

A Few Ideas about the New Korean Language Curriculum

Sohn, Young-ae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nounced that New Korean Curriculum(the eighth curriculum) will change curriculum system. In the future the specialists will research curriculum at any time and educational government officials revise curriculum on occasion. Korean Language Curriculum revision will be same.

Korean Language Curriculum have been researched the outline of Korean Language Curriculum-character, goal, -until the seventh curriculum. This thesis is focused 'content' of Korean language curriculum, because classroom lessons are based on 'content'(object).

The seventh Korean language curriculum is organized six content areas and is presented objects of each area every one year. It is difficult to present each grade distinct objects, object's differences between the first grade and second grade etc, can reveal themselves through various activities in textbook. This paper has opinion that the 1st~10th grade will be divided 5 steps or 4 steps or 3 steps, and the content areas will be amended from six areas(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Korean language knowledge, literature) to 'comprehension and expression'. It will be effective that new fields(ex. viewing, media etc.) will include in Korean language subject.

The 'comprehension' area can be contained 'listening, reading, literature, media, viewing etc and the 'expression' area can be contained speaking, writing, Korean language knowledge etc. It is needless that all of six areas Korean language curriculum are taught so long as ten years old-first~tenth, so it is fruitful that content areas be divided two-comprehension and expression, according to the process of thinking. According to steps, each two areas will be determined a few categories not oneness.

The 7th Korean language curriculum's 'content structure' is made up four

categories- 'conceptual knowledge/ skill/ attitude/ perform'. Four area's conceptual knowledges items and skill items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are overlapped. Therefore it is better that content areas are divided two areas. And it is preferable that area of Korean language knowledge be contained in skill areas at least 1st~6th. It is enough to deliberate that the literature area and reading area will be merged.

This paper reviewed 7th Korean language Curriculum and think over new Korean language Curriculum.

【Key words】 7th Korean Language Curriculum, content area, step, grade, content structure, category, comprehension, expression, object, skill(listen- ing, speaking, reading, writing), Korean language knowledge, liter- ature.